

# 김정은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한 군사협상 변화 연구

이성춘\*

## 요 약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 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Study on Changes in Military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through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ung Choon Lee\*

###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suggest the continuity and changes that would be made in inter-Korean military negotiations in the future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by analyzing the recent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ased on ‘anti-Japanese guerilla style negotiation model, the military negotiation model under Kim Jeong-il era. Especially, through analysis of the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t is verified that behavior similar to that in the military talks in the past is found even in the economic negotiations.

Such analysis leads to an assumption that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eun regime would be made within the category of the military negotiations under the Kim Jeong-il era. Fundamentally North Korea will change but try to achieve its objectives in the military talks within the existing frame of strategic culture rather than changing it. Such phenomenon will continue for some time. In the future inter-Korean military talks, however, North Korea will try to change its behavior to cope with its financial difficulties. Accordingly, the South Korea’s government will have to have paradigm shift toward inter-Korean military negotiations. Especially, Kim Jeong-eun’s studying abroad in the past will make him change in the negotiations. At this mo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make continuous efforts to induce dialogue and negotiation. In order to induce the North Korea to change, the development of economic norm logic with the united front applied in the strategic culture of military negotiation and the formation of a value system in the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 policy makers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a new military negotiation framework.

**Key words : Military negotiation, Anti-Japan Guerilla-Style Negotiation Model, talks 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접수일(2013년 9월 30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8일)

\*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 1. 서 론

남북군사회담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상호비방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구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는 군사회담을 거의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1]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제반 군사협상 결과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냉전적 안보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없고 남북한 정치적인 불신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던 군사회담은 일정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적대관계속에서 개최되는 군사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측의 주장과 의도를 탐색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큰 의미에서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개최될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 대하여 변화와 지속의 입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최되었던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 2.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2] 분석

### 2.1 추진경과

2013년 4월 3일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및 최고 준엄 모욕 등을 문제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출경을 제한하였다. 동년 4월 8일에는 김장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 잠정중단 및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하여 사실상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

은 사항을 토대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개성공단 실무회담 주요일지

구 분	내 용
2013. 4. 3	남측 근로자 출경 제한
2013. 4. 8	북측 근로자 전원철수 발표
2013. 4. 9	개성공단 가동 중단
2013. 7. 4	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제의
2013. 7. 6~7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2013. 7. 10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2013. 7. 13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2013. 7. 17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
2013. 7. 22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2013. 7. 25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
2013. 8. 14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2013. 9. 2, 10~11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2013. 9. 10~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9. 16일부터 시운전 거쳐 재가동 합의

### 2.2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

#### 2.2.1.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 적용 및 분석

북한은 ‘항일유격대식’의 전통을 ‘혁명전통’으로 승격시켜 ‘소련식’을 대체하는 사회주의 교양의 정신적 내용[3]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로동당 활동방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사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항일유격대의 ‘사상체계’,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계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항일유격대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등으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당의 구호 자체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와 같은 구호를 앞세워 당 정책의 무조건적 관철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항일유격대식 혁명전통을 고려하여 김일성 회고록[4]에 언급된 담판사례를 분석하여 각 권별로 분석된 표준

담판에 대해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5]로 명칭된 것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회고된 담판사례 중에서 협상모델의 원형으로 판단되는 ‘오의성과의 담판’과 ‘고이허와의 담판’ 분석을 통해 북한 군사협상 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델화한 것이다. 이러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은 협상관, 협상문화, 협상전략, 협상전술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협상전술 위주로 분석하였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 협상전술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개성공단은 7차 실무회담 후 지난 9월 17일부터 재가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통행·통신·통관 즉 3통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기로 되었던 3통 분과위(9월 26일)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하여 합의사항을 10월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시대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 모델을 활용하여 로동신문을 분석한 결과 김정일시대 군사협상과 유사한 협상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 모델이 군사협상 뿐만 아니라 일반협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경제분야 협상 시에 사전 북한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협상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과 개성공단 실무회담 비교[6]

단계	항일유격대식 협상전술	김정은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4차, 6차회담)	
협상준비 단계	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분위기 조성	4차	합의서 초안제시
		6차	개성공단 발전 김정일 유훈 관련 8월 5일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10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어’를 방영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4차	정치적, 군사적 행위 일체 하지 않음.
		6차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 업적 보도
	사전 유리한 협상의제 탐색	4차	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
		6차	개성공단 정상운영, 신변안전 및 3통 문제.

협상 초기 단계	주도권 장악 시도	4차	북측 차원의 성의 있는 실천적인 제안
		6차	3통 문제 군사실무회담 제의,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 서명 등
	협상원칙 제시	4차	개성공단 정상화 원칙
		6차	개성공단 정상화 및 중단의 근본원인 제기
협상 중간 단계	협상 상대방과 논쟁 및 압박	4차	일방적인 재발방지 대책 담보, 인위적인 난관조성
		6차	남측 주장에 대한 화답회피, 기존입장 관철에 주력, 북한군 재배치
	협상의제 변경 및 요구	4차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 설명
		6차	가동중단의 책임, 피해보상 등 남측 입장 강변에 대한 의제 중단
협상 최종 / 이행 단계	회담결렬 책임 전가, 합의 사항 거부, 지연조치	4차	남측의 부당한 주장 및 불성실한 태도
		6차	성의 있는 노력 외면, 회담결렬위기 남측에 책임전가
	합의사항 이행 소극적 및 미조치	4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남북간 인식 공유외에는 남측 요구사항 협상진척 미흡
		6차	회담결렬 관련 남측기자실 기자회견 및 회담관련 문건 공개

### 2.2.2. 실무회담 분석 시사점

군사협상모델 분석틀인 군사협상 모델을 일반 경제분야 협상분석에 활용하여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결과 학문적으로 연구 분석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다시 말하면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에 군사협상모델인 항일유격대식[7] 협상모델을 적용한 결과 일반경제분야 협상에서도 협상모델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군사협상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적용[8]이 가능하다면 경제분야 협상 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협상전략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대처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에 부합되는 진화하는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공단 실무협상 시 남한 측은 기본적으로 재발방지대책, 출입인원 신변보장, 3통 문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등의 기본의제는 물론이고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큰 협상의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측

이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첫 공식 노작인 4·6 담화에 나타난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관건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이 향후에 각종 정책 추진 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즉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사항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다. 남측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협상의제를 당근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김정일이 추구하였던 통일전선 적용방식이다. 나아가 북한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며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측의 실질적인 협상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같은 사항은 회담을 조정 통제하는 정책의 핵심 브레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책 마인드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모델이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사항이 크다.

### 3. 김정은시대 군사협상

#### 3.1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유지

우리사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협상행태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사례[9]와 개성공단 실무회담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북한의 군사협상 행태가 기존의 상태로 유지되는 요인은 군사협상의 행태를 결정짓는 특수협상관과 협상문화에 의거 오랫동안 교육을 통하여 체득한 결과이다. 나아가 체제 위협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층과 보수층인 군부가 군사협상의 인식에 대하여 특수협상관과 북한만의 독특한 전략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이 지속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연계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김정일 사망이후 2012년 4월 11일 당대표자회,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곧바로 개최하고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는 공식승계 절차를 밟았다.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3년 동안 공식승계 절차를 진행해온 데 비해 김정은은 불과 4개월 만에 권력승계를 마친 셈이다. 김정은이 당·정·군의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것이다. 왕조시대의 왕위 계승처럼 권력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령제’ 통치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10]

또한 김정은 체제하에서 전반적인 전략적 변화를 판단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북한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이자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변화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다.

북한은 로동당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구현한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고 여전히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선군혁명’노선을 명기하고 있으면서 이를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공식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 제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김정은의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고위간부들과 한 담화[11]에 나타난 대외관과 대외정책을 보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립 압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일심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일관성 있게 군사력을 강화하여 만약 적들이 침범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외활동 전략과 구상을 높이 받들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기본적으로 과거 대외전략과 정책을 계승해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명백하게 천명한 것은, ‘주

체혁명위업'과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밝힌 점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당규약과 헌법 및 김정은 첫 노작을 평가해 보았을 때 김정일의 유훈[12]에 따라 대내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의 군사협상에 있어서 당연히 항일유격대식 군사협상의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전략전술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다.

### 3.2 군사협상의 변화 예측

김정일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군사협상에 대한 변화요인을 김정은시대에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은 군사협상 사례가 한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변화요인을 유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항이다. 물론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하여 협상행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7차에 걸친 회

담을 통하여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킨 것이다. 또한 북한 지도자의 교체는 변화를 잉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유훈으로 받들고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가장 당면한 과제는 경제난의 타개와 북한 경제의 정상화일 것이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북한의 경제적 위기상황은 우선적으로 기술, 경쟁력, 노동의욕의 저하인 3자와 식량,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외화의 부족인 3년에 허덕이고 있다.[13]

김정일시대 남북한 군사협상에서 북한은 철도·도로연결 의제를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북한의 군사협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즉 경제적 실리추구 때문에 군사협상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북한은 남한의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으며 군사협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시대에도 이와 같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남북경협에 군사적 보장차원의 군사협상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4·15 연설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

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14]라고 밝혔다. 또한 첫 공식 노작인 4·6 담화에 나타난 발언에서도 김정일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모든 사업을 복종시키도록” 했다고 밝힘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가장 긴급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있다. 담화에서는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 첫째, 먹는 문제, 식량문제의 원만한 해결, 둘째, 인민소비품 문제, 셋째,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특히 전력공업부문 정상화 등을 집중 거론했다. 현재 김정은에게 부여된 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대책’과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핵개발이나 대남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해 경제정책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15] 즉 다시 말하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부분적 개방이 변화를 촉진[16]하게 될 첫째 요인이다.

둘째, 변화요인은 우리 측의 자세이다. 북한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군사협상을 유도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미관계나 북·일관계의 진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끊거나 느슨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하다는 주장[17]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안들을 남북한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남북한 또는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보다 넓은 안목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김정은 체제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협상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은 기존 군사협상의 변화요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다.

셋째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김정은의 유학경험을 들어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유학경험은 북한의 어떤 지

도자보다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군사협상의 변화요소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물론 군사협상 개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 4. 결 론

근본적으로는 북한체제 역시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몫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 시대의 군사협상에서도 여전히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의 범주에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은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자기식 논리화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를 정리해내는 방식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해답은 대화와 협상이다. 더욱이나 식량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현 시점은 북한과 군사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적기로 판단된다.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북한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전략문화 인식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식들 속에서 군사협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도출된다. 군사협상의 전략문화 속에 통일전선 논리를 적용한 경제 분야 규범논리를 개발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군사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진통이 수반된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담판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세력과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 간에 사회적 진통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관

계를 맺었다. 남북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남북한 신뢰구축이 바탕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신뢰구축이야말로 군사협상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남측 군사협상의 정책결정자들도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인식을 토대로 보다 넓은 공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군사협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군사협상행태가 변화되기 어려운 시점이다. 북한의 군사문제는 대미협상이라는 기본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남북한 군사협상이 군사적 본질문제를 협의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은 분야별 군사협상을 통하여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군사적 신뢰구축분야에 있어서 합의의 사례가 있다. 이것은 다른 아닌 비무장지대를 개방하고 실무급이지만 통신선을 구축했으며, 2000~2010년 까지 47회의 크고 작은 군사협상을 실시하였다. 적어도 북한이 군사협상의 틀 안에서 군사협의를 이행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북한 군사협상에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남북한 군사협상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이행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과 군사협의를 이행한 분야는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분야와 초보적인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질적인 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제외하기 보다는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군사적 보장분야와 초보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 등과 관련된 군사협상 의제를 정책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신뢰가 쌓이게 되면 점점 높은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대한 군사협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질적인 군사협상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협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듯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

지만 변화를 준비하면서 화해협력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37차, 38차, 39차 등 3회)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점(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군사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 [2]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정식명칭이며 이하 개성공단 실무회담으로 표기
- [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p. 813, 2005.
- [4]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총 8권(계승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건의 협상사례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5] 이성준,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행태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pp. 68~72, 2013.
- [6]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협상전술을 분석하고자 7차에 걸쳐 실시된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중 가장 논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4차와 6차 회담 위주로 협상전술을 분석하였다. 『로동신문』, 2013년 7월 18일 4면, 2013년 7월 26일 4면 참조
- [7]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전통은 현재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분야에 사상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김광운은 “김일성 지도체계는 일제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배양되어 김일성의 정권장악과 함께 그 원형이 성립되었다. 김일성 지도체계를 만들어낸 항일유격대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당·정권기관·군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광운, 북한 정치사연구 1, 선인, p. 749, 2003.
- [8] 북한은 “우리 시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선군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평양출판사, p. 59, 2005.
- [9] 김정일시대 대표적인 군사협상 사례는 남북국방장관회담(2회), 남북장성급군사회담(7회), 남북군사실무회담(39회) 등이 있다.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자료집, pp. 230~233, 2013.
- [10] 고유환, “새로운 권력구도 개편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김정은 체제 권력구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2012년 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 25, 2012.
- [11]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 [12]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이 2011년 10월 8일 김정은의 위대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일군들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한다고, 일군들은 앞으로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 장군님의 가장 큰 념원이며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남기신 간곡한 당부이다”라고 밝혔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18일.
- [13]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통일연구원, pp. 128~132, 2002.
- [14] 김정은,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 돌 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 [15] 류길재, “새로운 권력구도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미칠 영향 평가”, 김정은 체제 권력구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2012년 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 63, 2012.
- [16]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통일연구원, p. 87, 2012.
- [17] 문성묵, “북한의 협상전략과 대응전략”, 전략연구 통권 제57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p. 385, 2013.

————— [ 저 자 소 개 ] —————



**이 성 춘 (Sung Choon Lee)**

1986년 3월 전남대학교 학사  
1990년 8월 동국대학교 석사  
2013년 8월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  
현재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  
조교수

email : korealumen@paran.com